

연덕왕소제형으로일신일심이니엇지은익하리오평성소회를다하리라하고전후슈말
을다이르고하가환란과하공부즈를신고이구한말이며교주설치한슈미를전하고하소
저의참스한말에다々라는참연즈상하야그은혜를갑고즈금빚을적소에즈되하고하소
저분묘에스시로제함을즈제이르고슬쳐왕하소저는고금에업스니니박복하야만나기
전에죽은지라엇지동셔지안리오원리하랑이집소식을못고자하되스니기업럽고혹의
심할가스식지아얏더니짐짓말노써시험하야부형의설화를자세드르미부친과빚화가
사라남이저의은혜를납엇스며삼족의극형을면합이다저의덕이며지금에적소를보호
하며자과분묘를스시로제함이다고금에업스신의를감스함이극하되교주의일에다々
라느참과함이낮우에불를셋치고스홀뵈고시부되누를참고안직이라연하야다만총스
왕하시도절의잇거니와이는부인녀자의셋々한일이로되형의신의는드무도다원리형
이합회포창하야소회잇는듯하더니원리그러하도다상셔디왕극진이앗기는바는안직
과절효를못이저평성초창하나니하씨를한번보미심중에항복하고또은녀의게속앗
슴으로명문규슈도미들거시업스니한갓헛된일홍을미드리오비필를만나미음녀를만
나기쉬우니군자엇지형으로본성을상히오리오이러무로마음을긋쳐녀식을유의함이
업노라하성이소왕신의도잇거니와불인불선을왕얏심익필유현왕리라비록기녀의
죄악이관영하나설한코자그인성을아조맛치니이는군자의관인후덕이아니라고인은
교절에불출악성이라하니초인의죄를형이물시하얏스죽길기무사하얏슬거슬곳타여

상셔한갓벽향궁춘에쇼년션비로외모아람다음을스랑하얏더니에도도한문장과청
산류슈갓든말삼을드르미심하에혜오티이사람의식견이나의평성공부함으로도오히
려하등을감슈하리니진짓창히맛게창히잇고티산맛게리산이잇슴을써다라홀련장탄
왕소제진실노즈부함이아니로되그지교업을가하더니금일존형을만나미진실노오작
중몽황과창히에저근고기를껏지오미로다하성이함소왕형을장부로아랏더니한갓부
히한사람이로다상셔디쇼하더라상셔하성을상두하야명의관속하되하성을맛그로즈
약히디접하니상셔싱각건된장신함을단엄이함으로알고시부를창화하야지극후한
벗갓치하되술를스양하고판서실에쳐하니상셔는쇼탈한위인이라과거머지안나스미
독셔함으로그러한가뜻즐바다하는디로두되명의봉우의도와부부의를결하니엇지련
의아니리오다려온청잉무하성의잇는쥬렴에길드리고나아가지아이니상셔못거늘하
성이답왕소제어려셔부터길드리기로그러하하니상셔괴이라하더라일일은상셔롱
왕형이니모닝담하야장부갓지아이니부인도저러한죽비두음을외오리로다하성이쇼
왕소제집업슨손으로쥬장하리업스니동몽으로잇거니와본시녀식을불관이아노라상
셔소왕형이단정하야그러하거니와남이엇지녀식을무심하리오마는이십이되도록슬
가락이업스니환부의고로오미극흔지라만일그디갓든미쳐를마즈무험하야부귀공명
이부은갓트리로다하성이소왕형이벼슬이높흔이경상이되야엇지독쳐하리오아니금
현이단하얏나나상셔탄왕취설치아니하얏노라하성이날오티무삼스괴잇나나상셔쥬

죄를 일워 너스사로 구학에 너흐니 저의원심은 일노 말미암아 되고 하가의 루덕은 더하
 니 이도로 허의를 잊고 책불선이 되리로 다 상셔 웃더라 소제는 신의은 감사하니 자기근본
 을 알면 죽기로 써 놓치 아닐지라 김히 근심하고 심사요 동하야 비절하나 강잉하야 모로는
 듯하고 다시 무려 왈형이 비록 아직은 저러하나 자연늘이 오리면 장부일너 자로수의 홀거
 시안이 요도속녀를 구하야 옛일을 춘몽갓치 이즈리니 그씩하씨 죽지안나 취하야 서도지
 금은역가 폐족이니 왕법에 이이 흠을 면치 못하얏스리니 설사 하씨 사랏셔도 불관하겠도
 다 상셔 기리 단왈 그 자식을 사랑함이 아니라 그 절효를 공경함이니 비록 하씨 갓든너자를
 취한들 엇지 이즈며 비록 폐족이 되얏스나 만일 사룏스면 다행을 바라도 이안히는 바리
 지 못하리라 하씨 미소하며 파도 타하더라 잇씩 월광이 옥눈에 비치고 금풍이 소슬하야 제
 전에 계수어릿기며 계상 황국이 빗출도으니 하성이 빅포 단건으로 단정이 난간을 비겅스
 니 옥모영풍이 선연 찬란하야 이 향이 만실하고 록미 봉안과 도화갓든 양협에 일만 광념이
 달빛출앗고 뜻치붓그리니 괴묘하고 도호니 빅설이 무광하고 천택에 어름이 슈되할지라
 명릉하며 오치상 광이 일신을 들넛스니 편요하야 금가마 귀히 파에 떠러지고 아오라하야
 옥도운니 에 비회함갓트니 일푸시 하소서로 방불하교다 시보리 완연한지라 추연이 겹히
 나아가 섬수를 잡고 희연이 쇼왈 사람의 작인이 갓 초이 렷갓그이 하니 아모려도 놀마다 경
 익파 선단을 먹는도 다 원간갓트니 잇다 한듯 엇지 이리 한판에 박은듯하교그갓든 안히
 를 어드면 바로 쇼나의 심우를 덜이니 또그그나히 동년이라 엇지 신과 처하니 리오하서 후

그디를 처음보나니 셔이 몽몽하야 바라미 상운갓트여 일 비승훈듯하니 그디 엇지 녀즈되
 지 못하교가 희원이 그디로 동쳐하야 빅년을 즐기면 불미한녀즈를 어더 심우하노니 에 낮
 지아나라 하성이 청파에 크게 불안하교즈괴 종적을 알면 사괴요 란할바를 근심하야 강잉
 쇼왈형이 취하얏나나 비록 방불하나 잇다 한들 남녀의 체형이 엇지 갓트리오 하씨 엇더하
 던지 모로거니와 형이 저렷갓트그릇되미 절노 말미암음이니 저의마음이 결단코 정절하리
 니 유음지하에 더러이여 기리로 다형이 이렷듯홀진된셔역골류산가온디 선녀나 린다하
 니 저마음으로 가지고 엇지 츄즈가지아니하나 노상셔역쇼왈 다텇지 취하야 그리하리오
 형의 락미운치속인으로 차착지아니 이반가오미 유동함이라 석일록왕의 요지연이 잇스
 나 뉘진짓그럴줄알이오하더라

第九回 陳尙書逢舊緣半信半疑 河在玉擢壯元乃文乃武

전상셔가 전연분을 만나니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교
 하저옥이 정원에 세이니 이문과 오이 무과러라

상셔왈 부지럼시 멀이가 지말고그디 놀과갓치한디 유함이 엇더하교노하교 옥수를 잡고 술
 를나와일비를 거우르고또한 잔을보어성을 전하니성이 만면참석으로 강잉하야 바다마
 시니 상셔는 취도록 먹고 취안이 몽롱하야성의 세료를 안고 옥면을 접하야 만단슈회하니
 성이강작하야 혼연이 말하나그힘이 당치 못하교너므미물하면의 심될가 참으되즈연누
 리미시호를 디한듯만심이 붓그려하야 거짓소변을 쩍게하교몸을 쉼쳐월하에 산보하니
 그자래더옥괴이한지라 처봉이괴산에 놀고 소이월궁에 비회할갓트니 상셔볼사록혹이
 하야이러한가지로 건나다가야 심하미 침전에 드리오니 상셔잇그러동침함을 청하니 소

저잠업슴을청탁하고서안에유역을취하야낭이의외오니산호처로옥반을올림것은지
 라상셔또한자지아이코옥수를쥐고놓치아니터라이후로하성이두리오미박빙을넘한
 듯비록침석은각각하나한그르세음식을가리지못하고집수연슬를상々하니미양불져
 마다하씨갓단말이불안코두리오나다른디로가고자하나자괴평성특용이사람마다보
 면무심치아닐지라년이는상셔계수는뿐아니라다른사람과동거하미비기리오아모리
 상양하는기세양는이라다만몸가지물철석갓치하더라차시상셔를위하야구혼하는
 지구름갓트여천과만미모히되상셔한곳도유림치아니하더라이러무러과일이밋쳤스
 미과장에는아가글제를보고즉시시지를피고룡연에먹을갈아산호필에못쳐일필휘지
 하야선장하고몸을두루혀곳에이르니천만괴지공시를가져빅보박게관역을응사하
 거늘하성이는아가공시를비러호순을쏘아살이시위들응하야연하야맛치니연상던하
 디경하더라시관이장원을정하야답하에유하니문과방이는미하제옥의일흔이고등호
 지라호명하는소리세번나미하성이옥계하에추진하야국궁사비하니상이보시미머리
 는래양갓고갓가이보미명월이중던에올은듯옥경진이하계에나리미라블승괴이하스
 즉시스인을제수하스무수하리응호하니그장합이금고에업더라관광지척척충찬하고
 유녀는저런스회어듬을부러하고유저잔는그북잇슴을부러워하더라소져부득이이
 거조를하얏스는부친의성사존망이아득호를싱각하고자괴룡문에오르미능년이사지
 에는아감갓거늘또한도라갈씩업는지라사사에는처하는사이지차에무가너하라유유

은식이러라차시진상셔하성을과장에보내고그문짜는자족히득의호즐심중에지괴하
 는무죄는실시의외라그지모를단복하든차밋되조음을당하야만면출풍으로하다위의
 를모라병비하얏슴을알고크게기거쇼월형의문지는장원되미맛당하되그힘은술잔을
 이기지못하거늘엇지양유괴에사법을두었나뇨내그디와수월동처에그마음을예탁지
 못하얏스니가히쇼탈하다이르리로다장원이쇼월비록약간지죄잇스나자랑함이군자
 의되아니라맛참거즈드리청년사업을이괴미그만쉬온거슬응치아니커날잠간시협한
 일이도로허군즈의조용한되아니오사문수학의어괴미니형의척교를감심하리로다상
 셔무한니기거하나장원이그의괴를단복하고자차동괴에소실를수참하야종신도록근
 본을감초와안면에수치함을되지아니려하더라차야에상셔장원을청하야유찬을나
 오며풍악을유하야절기고조호를시켜의너모닝담음을의이너겨절석명기를디후코즈하
 니장원이스양왈소제요々신상이금일영광을고호를곳지업스셔심시비척한지라련은을
 만모치못하야삼일유가난마지못하련이와가무연락하야방랑하리오상셔유연왈정어
 나의심스와갓하나엇지강박하리오하고이에풍악을물이고종용담화할시모든좌우을
 고하야왈츠인은동향벗시라유시에부모형대를실이하야적상한심스풍악을조와아니
 키로금일떨위명공좌하에즐기미소즐하니렬위난키회치마르소서제이니답왈스관에
 실너유회난씩々하고풍이라그러나유인나지아이니손이엇지팸박하리오오날디인
 의신은보치기로분유하야술도못먹어스나이제호유승찬으로달야합이조호리로다상

공이 박소하고 주비를 나을 시즈 옥준금비의 향은 나가 득하고 청의 동지 임무를 압박하
 권하니 제각이 혼연 답소하며 장원을 이모공경함이 높흔스승갓치 하야 그년소함을 써 닷
 지 못하느니라 장원니 계화 청삼으로 염슬 단좌 향앗스니 축하에 광채 더욱 현오 하야 춘풍
 화기로 잇다 감 제각의 못난 바를 슈응하미 단중 명렬하되 박절치 아니코 유화하되 번잡지
 아나 장단득실이 규구에 합하고 응되 주선니 제지 비가에 무불 통지하코 랑하한 옥성이 도
 하야 단산에 어 린 봉이 우난듯하니 좌중이 그남을 우러 하모다 진 상셔를 만고 무적 이
 라 하다가 장원을 보미 오히러 두어 층스 양함이 잇스니 칭찬 불이 하더라 야 심후 각하도 라
 가 미 장원니 무르되 말 석에 소년 명스즈 원이라 하나니 뒤 완 되 형으로 절 천하 노상셔 답왈
 이 난도 승상의 손즈 오래스의 아달이니 버살이 리부시 랑이 오날과 동방으로 교되 절하니
 위인니 정직한 지라 당 초하스마의 처서니 곳 음녀의 정취라 음녀를 모로고 금실이 당 초진
 중라가 남의 활착하느 풍파를 만나니 다시 후취하야 필 낭중의 스 회되야 시미 하 양언어 간
 의 현 처미 석을 미 양 부러 하니 이느 그 비우의 불미 함이라 다키 러 무로 허 혼을 경이 못하노
 라 장원이 바야 흐로 교주의 가 뵈 출알고 불승 초 석하더라 삼일 유과를 맛치 미 공 후 제 상이
 저 마다 스 랑하야 신 다킬 유에 하며 성 명 향 관과 취 처 유 무를 무르니 장원니 답 왈 유시 정 약
 이 잇노라 하고 거 절하니 진 상셔 쇼 왈 니 만 일 누의 잇스면 너의 빈 실을 혐의 치 아니 리라 장
 원니 미 소하 더라 처시 상이 하 처 옥의 남 직을 제 추 하시고 문 무 장 원 각을 사 송 하 시니 이 문
 득 동 화 문 밧 하스마의 적 물 한 집 이라 노 비 전 답 짐 물 을 스 급 하 시니 은 총 이 고 금에 일 인 이

오런 리에 도라 감이 쇼 쇼 하 더라 장 원이 예 권 스 은 하 고 위 의 를 거 나 려 고 퇴 에 도라 오 니 범
 스의 구 하 되 석 일 스 춘 몽 이 라 전 후 원 림 과 회 이 초 난 주 인 을 반 기 난 듯 첩 하 에 제 비 쌍 쌍
 이 나 라 드 난 거 동 은 의 연 하 나 석 시 추 감 하 니 실 노 기 즈 의 일 론 바 옥 곡 한 주 방 인 의 의 심 을
 일 을 거 시 오 옥 을 주 흥 금 이 역 석 하 니 그 야 와 스 랑 하 난 으 오 로 써 점 중 되 슈 되 엿 스 니 자
 가 의 성 만 함 이 도 려 혀 손 복 하 리 라 더 라 두 루 살 피 미 부 모 의 거 처 하 시 든 당 스 와 즈 기 거 하
 든 곳 이 의 구 하 나 다 만 희 미 혼 연 과 외 즈 옥 한 뜻 글 이 가 득 하 며 청 상 운 계 반 기 난 듯 곡 난 화
 동 이 스름 하 난 듯 정 전 에 옥 계 는 잡 풀 이 가 득 하 며 분 벽 스 창 이 고 요 하 니 슬 푸 고 한 심 함 이
 교 집 하 야 하 염 업 시 눈 물 찌 러 짐 을 면 치 못 할 지 라 희 단 식 하 다 가 문 득 마 음 을 써 처 구 게
 하 니 이 는 혹 즈 방 인 니 알고 의 심 할 가 진 정 함 이 러 라 이 에 방 스 를 슈 쇠 하 라 하 미 시 아 등 이
 분 류 이 슈 쇠 하 느 중 빈 집 만 슈 직 하 앓 든 노 복 은 혹 단 혹 음 하 며 네 일 을 아 느 즈 는 장 원 을 우
 러 러 단 식 할 씨 림 이 러 라 장 원 이 이 에 노 복 을 초 저 각 각 직 업 을 맛 게 가 음 알 게 하 고 다키 각 은
 시 너 등 과 초 환 으 로 더 부 러 시 엄 케 하 고 다키 외 를 안 정 이 하 게 하 니 법 서 가 장 극 밀 타 하 더 라
 장 원 니 즈 기 신 세 를 칭 각 하 미 나 종 처 처 를 엿 지 하 며 진 상 셔 일 을 칭 각 하 미 붓 그 러 은 중 즈
 괴 는 진 가 를 쾌 히 알 고 마 지 못 하 야 봉 우 로 슈 작 하 나 저 진 성 은 즈 괴 를 아 직 모 로 나 자 연 갓
 가 이 아 닛 처 못 할 거 시 오 날 이 오 리 고 만 일 형 제 이 단 루 할 진 된 엿 지 가 소 롱 지 아 니 하 리 오
 이 를 칭 각 할 진 된 버 살 들 바 리 고 운 간 에 숨 어 여 년 을 님 의 로 보 닐 거 시 로 되 막 비 턴 애 오 비
 인 력 이 며 또 한 일 편 심 위 기 밧 하 일 들 이 렷 듯 하 면 하 문 을 신 원 처 못 할 지 라 잇 처 림 칭 각 하 미

슬픈마음과한심한근심이출결슬듯하고업연이단좌야치국평던하지도와안방정국
 지술를헤아려운유유악결승천리하고명견만리할뜻즐싱각하는지라금월에도회하미
 만도를것짓고공스를가음알더라츠시에진상셔하싱을동거코즈하나득지못할거시라
 이에저의등과함으로깃부미지기에등룡시로다름이업고연창방에분유하야날이감을
 모로더니얼푸시삼일유과를지니미런즈장원각을스송하신지라미양과도후면 그곳즈
 로가니마음에그영광은그지업스나일도에장중룡유를일흔듯시름업시도라와광실이
 적적한디더부러말하리업스니묵연무언하야관복을버셔더지고미복으로하부에이르
 니자기또한추연즈상하야그유안은북히죄슈되고집이망하얏거날상시그문전으로
 지날적이면츠탄하더니다시친구의집이되야츠즈오니처초함이더욱시롭더니다시하
 시의집이되니또한괴이하도다하하며셔셔현에니르니뷔엿거날동즈다려무르니디
 왈로야원림의소요하신다하거날상셔셀이거러니르니사인니연정에서비회하거날불
 니왈형아나는그스이떠나미회포되엿거날형은회도후바로이리오니언제집이삼기라
 하얏더나나는형을슈족갓치아랏거날이미물한거슨집을즈즐하야하던가사인니슈
 식을도로혀화협에우음을씩여왈형은의외지연으로소제를척지말나우리다호화로온
 스템이아니라형도집을척로정홀씩그심스엇던가련은니망극하야업든가스와비복이
 몸으로쫓츠나도다고한곳지업스미마음이버히는듯하니어니경에벗슬츠지리오님의
 가스를정하얏스니처소나안정한후긴날에회스도너々하고단란도어렵지아니거날무

삼거림을척하나노늑언제그디집을지닛다하더나상셔청과에무장디소왈도로혀날다
 려암미하다하노우리양인의되갓흐니어이그릿치아니리오하고인하야그누흔을보고
 본적은제닷지못하고위친지심을연이하야섬요를광슈로쓰리쳐안고한삼으로뵈스겨왈
 형의심스비록슬푸나오히려라일귀회잇스리니다우형갓튼벗시잇셔사싱에미듬이되
 리니엇지조비아구나노사인니불엿하되이목이번거하고미양한두번니아니라다만
 몸을씩여이러안즈소왈형이취하얏나니어린아하아니라엇지너모친근하나노상셔
 소왈유아갓치어엿부고현금갓치어엿분타시로다하하고이옥하바라보다가양류목에혈
 셔를보고참연회혈하니사인니문왈형의상감함은엇지미요상셔활련장단하야왈져혈
 셔나외고별셔라츠호셔져라속도성형을슈중원흔니되니늑감히셔를지어화답하얏나
 니미스지전에엇지이즈라사인니여시감스하되스식지아니코위로왈만스다명이라형
 은천금귀체를손상치말나나는형의너모우슈을여함을취치아넛나니져거슬본즉감회
 할지라상셔왈불연하다저의몹슬동성이역모를아루스면늑빗취지아니하얏스나나
 에고하고정문포장하야벽々이원위에두어봉스한즉그의를갑호리니이리속절업시실
 허짐을일칭이셔하미오사시에제할씩미양이곳에와비회하야의형을티하리니무삼일
 업시하리오사인이듯는말마다니두거취를근심하더라츠후로는진상셔스인을일서라
 도보지못하면을억하야파도후는츠즈니비록밤은각々지니나넛셔로떠나지아니코
 그위인을취중하미그간디소스를문의하니스인은신인이라던디조화의등달하코발으

미조마경의 지나 비록 안는 거슬 낫타 너지 아니나 못는 비잇스면 여련한 총명파 여신한 술
 괴잇스니 상서흠신 괴이한 야 농흔스승을 티점하고 비취는 거울이라 하더라스인니 거
 관찰직하 미공금정직하 고씩스강명하야 급암의 총직과 노종년의 지과와 겸하야 스군보
 국하 미능연 쇠락하야 동렬를 티점하 미현저는 습복하 고 소인은 묵묵하야 직스를 힘쓰미
 오장관을 낫도지 아니미라 다만 규구를 밝혀 부제를 구학에 건지고 스하 미오직세를 곳
 미할분이라던지 괴디하 시고 만되벌복하더라스인니 묘스에 금관저포로 피옥을 올려던
 폐에 이르면서 광이 휘휘하 고이항이 옥옥하야 청아 쇠락한 괴상이 빙호를 먹음은 듯하니
 견지다 옥경선지라 하 고물망이 묘야에 들이니 벼살이 점점더어 문하 사랑홍문관병부도
 총관을 겸하니 사랑이 가지록 공금업업하 고 소심익익하야 흡연니 이윤유공과 여상에 뒤
 출이를 지라 슈년년에 점점더하야 동궁시독시강학스되니 티즈를 적심총담을 돕스외치
 국평던하를 베프러알려여 음악을 멀리하 고 요순지치를 죽하야 위국 총심과 도도한의
 논니 금옥갓흐니 티즈 존경하심에 강에 미쳐관을 바로하 시며 썩를 도도고 공수염복하심
 이지극하야 범스에 좃츠시니 성덕이 날노도라 오고 학스일시도 한가치 못하야 진상셔와
 상주함이 드 무더라 일일은 번을 나 집에 도라오니 문회적요하야 불과 서동의 누볐이라자
 괴서로이분주하야 가도를 흥괴할 뜻지 밧부되 괴약이 묘연하니 심식 초갈하나 마음을 벗
 철곳이 업스니 과연니 몸을 두루허 후원 송벽정에 이르니 송벽을 좌우의 벽여류를 심어는
 티괴화이 초석가 산을 들녘스니 슈양대의 회원갓더라 삼사간 죽당을 지었스니 반죽으로

곡는 주함을 썩미고 티요반저는 구름이 날고 산호갈고 리에 슈정념을 께고 마로 상락에 백
 옥셔안니 한가히 노혔는 티화향은 축비하 고 양류천만스에 청록황원니 무리지어 단니 고
 는 봉공작은 오식나 리를 버려 춤츠니 완연니 무릉소상이 오왕모도 원이라 경물이 질거온
 스람이 보면 환환회회하야 음괴형산하며 슈무죽도 할거시로 티자가로 보와는 슈회일청
 이라 쳐량함을 강잉하야 옥로에 향을 더으고 을 연단좌하야 금현을 나외 문무의를 룡하니
 신々요々하 고 회々탕々하야 려디상화하 고 만물이 상응하야 우우락하 고 외외절절하
 니 정이 곡조를 변코즈 할제 문득 금성이 갈리고 줄이 실어지거 날학식 놀나 머리를 드러보
 니 진상셔 뒤히섯는 저라 거문고를 던지고 마즈니 원리진상셔 도셔를 밧드러 락양을 진슈
 하며 민정을 살필식 그본시 그싸에서 스는 저라 다차즈이 흘하니 죽당이 당초즈괴경상과
 이계적거스마로 금의 환향함을 괴득이 녀겨우러 스창송하 고 지부티 슈분황이 영접하 고
 위덕이 화이에 진동하니 종족이 막 불칭찬이라 상셔 국스를 맞고 복명하 온티상이 원로
 구치를 위로하 시고 민정을 무르스 선치함을 칭찬하 시고 그강명정직합이 고인에 나리지
 아니물 표창하 시니 상셔 스은 퇴도하야 집에 도라오니 문정이 적요하 고 노복이 마즐썩이
 라서 현에 이르니 병장이 종々하 고 광실이 화려하야 만스반기리 업스나 다만 스묘에 비현
 하야 감루삼삼이 금포를 적시더라 밤을 쉬여 명조에 필마로 하부에 이르러 사인을 차즈니
 외당이 뷔엿거 날시 동다려 문왈너의 상공이 어티게시 노동즈 침음양 구에 티왈로 야미양
 송벽정에 유하스외익이 오시면 나외 영절하 시나이다 상셔 소왈너의 공은 나의 아오니 엿

지셔로 통하리 오하 고 셤이 거름을 두루 허 후원에 니르 미 송벽이 창창하 니 박화만 말하 고
 는 학이 쌍비하 며 자귀 침금은 불을 노리하 니 시절이 화창하 고 경물이 가려 한지라 심신니
 청상하야 우화등 선할듯하 거 날 전각이 초외 혼디 일위 선인니 안 쳤스 니 른 건학 창의로 박
 옥화로에 향을 피오며 금합의 활과와 일월성진을 썩스 니 칠현금을 섬섬 옥슈로 줄을 고르
 며 돌을 화하 는 디 호치를 반미하 고 주순을 여러 글음을 푸며 곡조를 맞치니 사히 승평곡이
 라 금성과 아을나 요량하 고 쇠락하야 룩를이 화하 고 팔음이 도도하야 청풍이 이러 오운을
 만리에 쓰라 침갓트니 안취 현는하야 아모란 줄모로 더니 문득 금성이 갈리 여 싯어 지는지
 라스인니 천연니 이러나 사일 쌍광을 드러 좌우를 살피니 광능싸 보경을 거렸는디 홍일이
 허파에 떠러 지며 처봉이 운리에 비회하 는 듯이 향이 습습하 고 서의 몽통하 니 자시 보디이
 다른니 아니라 천우하 지옥이니 비로소 마음을 정하야 아가 디 소왈이 곳이 무릉소상이
 아니어 니 오경 선니 하강하야 진도속 직을 놀니 나노 사랑이 미소 왈원 리던 주형이 왔도다
 디 당위 엿지 자 최를 구차이 하야 벗 설엿보 미구차치 아니 리오 가히 경박 지인이 로다 거 일
 형의 주성을 보미 자 미원을 향하얏는 지라 금명간 드러 올 쇠줄아 뒷 더니 어이 텃니 드노상
 서소왈 그스 이 락 양을 순슈하 고 오날 봉명 후도라 꺾문을 나 본부 로 향하 다 가형의 안모를
 그리워 바로 이리로 반길 가 하얏 더니 앗가 슈직 동즈 송벽 정길 열지 아니 커 날 님 홀노 블
 고스 체하 고 드려 온 즉 별 유던 디라 다 만형을 찾고 저하 더니 홀연 옥경 선인니 날를 희롱하
 도다 하야 죽져 하 더니 원리 하형에 노리 앗다 늘과 갓치 놀미 더 옥죽로 다하 고 사인을 안아

왈련하에 이련 남즈 또 있나 나 진평이 미여 관옥이나 엿지 그디에 비기 리오 오리 썩나 다 가
 보니 서로이 신신 요요하야 점점 더고 으니 반다시 무삼약을 두고 먹는도다 그디만 일녀즈
 려들그장부되나 니 반다시 단명하 리라 연나 나에 왓스 물알고 즉시 범범하 니 이아니 환
 술의 도화나 반다시 날를 님의 할이 니 근즈 오미 다라는 가하 거니 와나 는 멀이 가도 오형을
 잇지 못하 고 미일 봉조 후 날이 저 무니 밤을 겨우 식와 왔거 늘 형은 나의 오는 줄알며 맛지
 아니하 고 외디 하 미심하 니 평일 우형의 사랑 할과 다르도다 사랑이 환연스 왈형의 후의를
 다스하 나니 감히 칙하심을 한하 리오 감슈하 거니 와 직스에 분주하얏다 가 맛춤이 양이 잇
 는고로 집에서 요리 하 문도형 동판이다 아는 비라 슈고로 이 님을 여러 발명하 리오 앗가 올
 겨움을 인하야 잠간 초칭코즈 우연니 농하 미라 형이 여어드르 미곡죄 변하 고 줄이 싯어 지
 미긱치미라 엿지 니외하 리오 상계소왈 그디스 고는 님물 낫거니와 자서이 듯지 못하얏 더
 니 날을 위하야 한곡도를 시험하 라시랑 왈고요한 정신을 흐트릿스 니 엿지 또 시작하 리오
 드르니 형이 음를 능통한 다하 니 소제를 위하야 이곡도를 화하 라상셔가 연소왈 남즈 엿
 지지 괴를 속이 리오 니 비록형의 신술를 밋지 못하 나 박아의 녀시 도라 오게하 리라 하 고 즉
 시의 관을 정돈하 고 문무칠현금을 나와 헛줄을 썰쳐 줄을 화하 니 기성이 희희탕탕하야 운
 권할 연하 미 되되 락々하야 일만 조슈물너 가고 천군만마요 동하 는 듯 창히 교룡이 비무하
 니 사랑이 동안 칭선 왈 장하 다 금성이 여형의 괴질과 갓 혼니 만리에 길 열고 만군에 회형
 홀괴상이 라즈 방의 봉소일곡으로 초병을 파하 든 곡조니 웅장하 되쳐 초하 고 활발하 되이

원하야 반다시니 왕에 녀시 잇슬진된듯길거시오 박아의 혼나거의 도라오리다 상셔 소
 왈나 면저랏스나 진왕의 장구치물스 양치 못하리라 사랑이 부득이 일곡을 화하니 우연니
 런디 조화를 거두어 만리운하에 명월이 밝았는듯 봉황이 상셔를 응하교 기린니 교야애나
 린듯하니 디순의 남훈곡과 부지진체에 절양을 탄복하사 듯곡조가 흡스하더라 타기를 맛
 고나 미상셔 왈차는 디순의 남훈곡이라 디평성디에 형상이 되어이 윤주공의 정스를 응염
 주하교 호연하야 한뼘 박운을 응하야 우유간에 활비한곡조라다시 일곡을 변하더면 풍운
 니 변적하교 런디를 저작홀기들이 잇거늘 군이스스로 헤아리고 굿치니 오히려 건곤을 출
 몰홀기상이 잇는지라의 의히탁속진체에 머물미가 처아닐가하노라 사랑이 소왈형이거
 의지음한다 이르리로다 인하야 한담홀시 상셔도 풍경을 이르코 소왈을 외쳐에 갖다왓
 스니 형이엇지일비주를 위로치아닛나뇨 사랑이 소왈니님의미주로 형을기다린저오리
 되형이 주량이널너 시작하면 굿철줄을 모로고 주후의 정디치 못함을 두리미로다 하교 좌
 우로 주비를나오니 금준미주와 쇼아한찬품이 향기로아 환에 무리또한청고하야 진퇴가
 작하니 상셔 칭찬왈즈고로성인나시미 초목이 상셔를 응하교 님군이 어질면 신하충성
 한다하니 형이니스를가음알이 업스나거처음식과 비부의 무리법되잇스니엇지괴이치
 아니리오 사랑이 잠소부답이러라 상셔 슈삼비를 거우르고 주괴 발양하니 잔을 잡고 소왈
 형의말갓하어나먹기에골물하야 주인을 권치 못하니 손의도리아니라 하교 지리이 권하
 니 사랑이마지 못하야마시미 옥안설부에 흥광이 취지하니 봉안나가늘고류미나직하야

불은 빗치 찬연하미 광채 비승하니 상셔의쉬 무로 녹은지라 스인의 옥슈를 잡고 교슈점면
 하야 세요를 후릿쳐안고 옥면을 다하고 녀슬일헛더니 이옥교 소왈 소제열인을 만히하얏
 스투형갓흔니는 보지 못하얏스니 하날이 진제비를 미인녀기스 화옹이 현스하야 그디남
 이되야 속절업시 제벽의이를긋는도다 사랑이 저의 주홍이 광피함을 괴로이녀기나 강잉
 소왈형이 밋쳤나냐 소제어린아하아니어늘미양이 렷듯괴로이구나 노한이 겁고원나 밋
 쳐참연즈상하야 봉안나어엿스니 상셔 차경을 보고 묘석에 디하야 슬허함을 보니 그의를
 감동하되 또한가소로운저라미미히함소하교 랑중으로 좃차 옥피를녀어왈차물이하소
 셔장염으로 하공이 친히아스날을 준비나 지금머무러 그의를 갑나니 박인니 유아이스라
 엿지슬푸지아니며 또쌍연시를외와니르코 박화저의 소작이라 하야 소제를 뵈니 그식견
 이엄담하니 의척하노라 사랑이 그 옥피를 보미 완연니 부공이 글너가 선비오쌍연시는셔
 일영춘각에서 남미희룡하던일이 안전에 버렸스니 감상함이 교집하교 자가를 위한정
 철구금심이로디 망연니 모르고 성병도록사모함을 보미 실소하교 감동하야 심석요하하
 되강잉 소왈원리하소저갓흔지 감은업도다 그글를드르니 연분에 불길한중조나타나교
 또형의정성은그러하나 사람의상처하미만커날슈빙한녀즈죽으나형이저디도록하리
 오장부스성도두리지아니커던엇지 청년요절하야 박복한녀즈의 슈적을 흥포금관에 권
 위를올니는 지상이 남중에 감초고다니니 형의 신명에 슈치함이 업나니 실노구하함이 심
 하도다 초후는 업시하교 심두에 두지말나 소제형으로 자괴의정이잇스니이우성스를말

미암무미라형은당들이너기지말나상셔왈티산니평디되고벽히가상전되여도뜻은변
 처아니라시랑이쇼왈형의진이여초하니하시영벽이며지아닐지라알미잇스면상심
 홀리로다상셔추연왈니실노취실지심이망연홀지라장부일너조로혜륜함이아니오니
 루티독신으로홍망이니한몸에잇스니엇지감히무후절스하난죄을어드리오비록취실
 하나천심이금석에삭엿스니제상스람이상쳐하난스람이하나돌이아니로되저로더부
 러동방화축의성례후저의도라가고한낫골육을깃쳤스면아름다이성장하야륜상의셋
 사합과덕의의분명함이피쳐엇치아닐거시오가부를위하야죽어도원통치아니되초
 인은빈조희한장과옥환일쌍으로백년신제를결단하니인비목석이라이이참으리오나
 의부귀극함이다저의출비라조고는속절업시최옥락화하미되어할한님절이송벽과비
 교하니네엇지날을과도타하나노장부심규의어리물효칙지못하나타일디하의죄봉함
 을괴약하노라시랑이박쇼왈형이아모리못이저하나미혼전혼벽이디하인들엇지조초
 리오년이나형의년과거의이십에구혼하느지구름듯하나장초뜻지어디잇는노상셔
 쇼왈너님의무산을보와뜻지놈고음녀의변을지는후로규슈의현부를모로고취함이두
 러위쇼리허헛치못하디그디신과하니날를위하야한번길흉을점복함이엇더하노시랑
 이할쇼하고이의세슈분향하고복희십팔괴를버리고금전을더저한쾌를어드니봉미를
 빈축하고이옥이싱각하다가왈형이아모리밤바하야도도물이다식하야스년공방이잇
 고계축년간의쌍미속안을점두하련니와쳐녀는화주소이에서날거시오빙고는금월간

은디너잇스리니아적은불길하야연분니아년형이드르미금호리로다상셔유년답왈나
 의혼취일시밤분디여초요원하노연니아형의점석허망타호리로다니엇지스년세월을
 견디며더옥금월가온디로는다함은필련공주를취한후난길이막히리니엇지쌍미속환
 니되며하유너조라함은무삼뜻지요가장모호하도다시랑이쇼왈형이니말를허랑타하
 려니와초후중계하야보라화복이관슈하니비인력이라하유라함은나도또한조서치못
 하니색로보와알이로다형이풍류로써인년이심원하고과초라함이여초하야조손니
 느즈니엇지조화옹의현스함이아니리오형은하시죽음을슬허말나비록가과느즈나쳐
 궁이벧나니하시의셔더나은속녀를만나리라상셔금선으로등을쳐왈형이가장영오한
 체하는도다제상이하시일인도과이거날나흔니야어디잇스리오다만하서는너중왕이
 라남조로서는그덕의출어범뉴하고청슈연약하야홍진의버서는과질도업스려든또엇
 지그쌍이잇스리오시랑이관을속이고합소하더라이의몸을이러정중에비회알아마도
 실성하얏도다남녀의용이다르거날니하시와아량고치갓트리오광중이적자아니하
 도다형은중진이라명만사히할호닐이어나와우리가든무리는세연니단하니불구의
 공성신되하야은거산림하고사절영육하야원위적송조리니그디로문성의사괴미길치
 못하리로다상셔청과에악연저상하야이러집슈왈그디진짓말과괴질이학우션갓하
 여연미슈려함으로비로숨이어나와복록이완전하니엇지산스의복업슨도셔되리오하
 더라

第十回

陳尙書棟樑椒房 河元帥勝戰江州

진상서는 부마에 간직이 되고 하원수는 강주에 싸움을 이기다

각설상셔왈그디엇지산간의복업는도시되리오날노더부러지심봉우되여성스영육을
 한가지로하고진퇴안위를일체로하리니네엇지날를바리고가고조호노금제의너일신
 썩이오버금제빅이라품슈는다르나동포골육갓트니그디도라간죽니홀노제상에서지
 아니라시랑이초연왈후의는다스하거니와도항의총슈한지스오제오형은삼십오년
 을고관디작을누리가또다시남면왕작으로삼십년을치국하리나의최잔한조최로비
 하리오상셔장신장의하나악연불락하더라원리하심이점사를보미상셔로빅년천년이
 굿게미엇는지라심분불렬하고사괴불평귀날저의무심중이나은스이유의함을불안하
 고비필이후주에잇다함은조괴성이하시미하슈라하야쳐닷지못하게합이러라날이셔
 물미척반을을이니중당에나와디식할시상셔의게는두말밥을쓰로상에늦코찬물을풍
 비이하야드리니상셔왈니삼일을네집의셔겨그면네집이피가하리로도시랑이쇼왈형
 이거량이라할시시협하고져함이라도상셔디왈오날은저무도록포식하얏스니엇지능
 이진식하리오드디여하져하야시랑은미쳐파치못하여셔상셔는진식하고져를늦는지
 라시랑이쇼왈그디는장군의괴품이어나와다만비가죽만광디하야너허무용한용부라
 상셔디쇼하고왈네감히밥을욕하려하도다니천병만마로런하에황헿하야널로써군중
 의셔참모를삼아빅의셔성이라하리라시랑이답쇼왈니또빅모황월로동셔에정벌할적
 압션션봉으로하이어나의디하에쓸게하리라상셔금션으로등을쳐왈이놈이당들하야

날욕하기를심이하는다니회거동이당스미인이니널노써남의를벗기고금차홍군으
 로나의회중정인을삼아슈유불이하리라시랑이변석무언니라가봉안을출여숙시미쇼
 라라상을물이고청중에비회하며회쇼하니락일이셔산에걸이되드라감을이지니시랑
 왈형이아니야화코조하나야상셔추연왈디당의양천니아니게시니의려지망이업고무
 라형데하니실가지락이업는지라그디의션연의용을디하야고금을논는하며나문밤을
 지니미원이로다시랑이김하불예하나강잉하야머무더니본부노조손이왔스물고하
 지라상셔부득이이러나명일다시못기를당부하고가니시랑이문의에나와작별하고단
 왈나는속이고괴이거날저는종시모로는도다하고이의유련커날나는그도라감을갈망
 하니저의거동이구연하나피초길이는호니이엇지온동하리오여초창화하야혐의잇스
 니비애오교주의일이한심하니하면목으로그안을웅거하리오이또마장이라다시심두
 에두리오하더라명도의도회를파하고상셔의청함을인하야슈리를갈와진부로갈시길
 이심즈가를지나니쥬관화각의금루는창의모든창기하진양인의욕모영풍을바라보고
 실흔탈피하야손벽치고발글너왈션두조는육경진인이오버금은리두의후신이로다하
 고닷도와굴을더지니시랑의슈리의가득한지라시랑이우희너겨건안시지하니제창이
 아황분벽을닷도와투굴하니그거동이또한장관이라상셔를도라보니금션으로면초하
 고술위의가득한굴이품가은디드되안연부동하니시랑이심리의항복하더라부중에도
 라와한담하더니시랑이문왈작일엇던손니왔더뇨상셔왈원방의외척이왔더라하더니

문득한상셔와사랑이왔나이다상셔청하야레필죄정의사랑이불열하되도상이셔조로
 보닌손이라피치못하야역시이러한헌을베포더라님의차를파하미진상셔갈오디복이
 근간은봉명하야외방에나가기로도공문하의비견치못하얏더니존가폐사와글하셔니
 불승감스하도다상셔형은디장군도민의아달이오사랑은도의현이라도공왕한공이봉
 스하야외방셔오시되오리보지못하얏더니금일차지르미니평안니국스를선치하셔
 니만항이로소이다인하야담화혈셔사랑이옥안유풍을식로이스랑하야각별치하셔
 교도미즈물청하고언어간의성취를못거날사랑이전약을일크러추락하니도상셔소왕
 장부엇지아너즈의전약을인증하야환거하리오그디작위춘경에잇고년과장성하얏스
 니저려옥인을사회삼고져아니하리오비록천문공조라도연도라오리니티위의삼부
 인네로면저명문화죽에취하야풍도미물케아니미가도다사랑이공슈왕존인니스리에
 당연하셔니후의를봉승하오련마는성인의법강을저바리지못함으로이다양공이악
 년실망하더라다시진상셔다려취실을무르니상셔디왕학성은본디부귀궁달은보지아
 니코요조속녀를구하야평성을허송치말고즈하니아다하상셔소왕군언니그르다규중
 현부를엇지알며방금그디외적슈여즈업스리니잠간참치하나혐의치아닐진딘아람다
 은규슈를천거하리라고디는너모고집지말나엇던너즈를구하나노상셔웃고하랑을가
 르쳐왈이갓튼너즈여든천거하소서하상셔왈이노방언이라이노고금의드물뿐아니라
 던상의셔그들이업스리니어디가어드리오만일쳐저하시랑갓트면도로허손복될가두

리오니조고로홍안니박명이니너모구하다가도화옹의현스함을넘으리라상셔소왕하
 형은용석만취홀뿐아나복록이겸비하며오복이구존하며적지아니리이다두상셔소왕
 군등이년소지심으로취척하거니와너모슈미하야수에히로오면무삼유익함이잇스리
 오그디원니여차하니화상을그려던하에광구함이을도다잇척하시랑이염슬단좌하야
 산호병풍에헹락도그린거슬잡착하야보더니모든말를맛친후봉안을기우려진상셔를
 보고완히이정석왕천주형이오십된도령으로심화성하야광망한말를하야무단니날를
 침도하나노군즈덕을취하지엇지식을의논함은무염의라황시의박식이라도덕이잇스
 면군즈취함이도리에맛당하니비록미목번혜와진슈아미라도복이열으면하릴업스니
 진진우음도다사랑이봉황목을징기여왈너괴운이불평하니엇지먹으리오하고동시불
 음하니상셔가장섭々히너기더라일모도원하미제직이사랑을디하야위곡히후회를과
 약하니사랑이흔연이응답하더라사랑이도라가고즈하니상셔물너말삼할셔문득우어
 왈도의현니흔잔암약하니그귀의엇지현속하리오시고로제여러번빗취디헛치아닛는
 패라사랑왕형아형이불구의승은호금병슈막가온디아람다온손니되리니부절업시
 허치말나상셔쇼왕피로온말말나분명그러하면다른디성천하리라사랑왕차역연분이
 라사과님박의불금미니라상셔십분불열하교술를나와스스로잡아사랑과권하니사랑
 이비로쇼바다마시고찬품을하져하니상셔쇼왕앗가술를스양하기로어디알판가나의
 심스불평하더니이제는나흐나니말심이쾌열하도다하고그머리를집쳐온닝을살피니

사랑이 그 지극한 정을 감동하야 스왈출일이 불화하야 두둥이 극하더니 이제 저기 감동하야
 거니와 쇼져어려셔도 관의셔즈릇스니 비록 남아로디 남의 먹든 음식이 실코나릇스 람
 파는 더욱 어렵고 형은 명위 남이나 동포골륙갓트니 박절지 못함이라 샹셔그 러히너기고
 그 닝담함을 조소하나 자기의게는 극진함을 사랑하야 등을 어로만져 왈너는 이제니 취실
 하야도셔로 비즈하더라 명일 샹이 하진 양인을 인견하스 글을 지이시고 드티여 공주를 샹
 셔에게 하가하시니 샹셔시랑의 명견을 단복하고 만스에그 신과함을 항복하더라 비요하
 사랑의 용화과 질과 문장 표치를 불승의 모하야 닷도와 문정에너르러 교도를 밋고져 샹분
 야류하니 사랑이 불열하나 디인점물에 극진치경하야 레를 다할지언정 교도를 허함이 업
 고 좌석을 압근치아나 단엄함이 추월갓고 두번이 르면 회스하되 술을 당하미 못먹음을 스
 양하고 음식이 이르면 하져함이 업셔마 른 것과 파 품이 이르면 먹으니 후교만 피벽다도하
 야 흠흠히 피리 업스되 오직 샹셔로는 예스로이 주비를 화답하야 봉우에 되흠연하고그 단
 엄함으로도 각박지아나 피차부모형데갓하나 인인이 다일오디 관포의 지과와 종아의 저
 음이라하니 샹셔의 정은 더욱 사정동결이라 화설티종 황데 정궁낭과 일위공주잇스
 니 호왈명선공주라 용두봉골이 오금치 화협이라 침어 락안지 용과 폐월슈화지 락잇고 총
 명영오하야 약논에 자최잇고 동가에 석이잇스니 진짓경국지식이 오요쇼가인이라 샹이
 극이하스 슈샹룡류로는 총이 제왕공주로비하리오 방년삼오에도 요의시를 노리하니 샹
 이부마간 락을 누차하시되성의 불함하셔거늘 티즈고 왈신을 보건된 중국에 인지성하나

저모덕형을 가진 지업는 지라다 만시 남리부샹셔동편장스진세벽은기세영준이 오충후
 장즈라가히명장현성이 되염주하고 문하시랑홍문관학스하저옥은인중에 띄어나 현명
 군지라유유도스에풍으로남절충의치세홀지덕이겸비하니 만도문무중에너스 람당홀
 지업스오니 비록원방셔성이오나문장지예초방에승은함이 구이치아니코공주의비필
 되미가합하오니 양인중퇴정하니 맛당하야이다 샹이디회하스왈청합오의나년고하니
 취실하얏슬가염여로라티즈쥬왈조용이힐문하소서 샹이인하야 양안을 피초하스글제
 를너시고시각을정하야 지으라하시니 양인니승명하야 화전을피고취필을드러경각의
 취쇄하니 샹이보시미하저옥의봉형는질과옥모선풍이 락속징청하야 흥진의뛰여논바
 로글를저으미싱각함이 업스미풍우갓치슌식의 락필하고세벽은완전하야 셔를밋게하
 니 샹이 그옥이 총찬하시고 양인의글를보시미세벽의글은웅침하고 광원하야 리산과디
 히의근원니오저옥의글은도화신출하고 문치찬논하야 오은니 징고하고 청신하야 속과
 를거두어 빗치오미빅승하니 샹이셔로히총찬하스저삼음영하고 칭선하스 옥티일차식
 샹스하시니 양인니 락은을속스하시니 샹이 무르스디짐이 모셔의셔관저편을제하얏
 더니진경은오허려말일하나 하경은너모랄속하야 셔글에버셔나니 길도적도다경등이
 작위경샹에밋치고년과 찻스니 응당취실하얏스리라 누집녀셔뇨세벽이돈슈왈신은나
 히차고 락은니 망극하와 비살이저벌에잇스오디어린쇼원너리고하와지금셔지취치못
 하얏나이다 샹이경왈경의풍신용화로 작위저샹이어늘취실치못함은의외로다아니갈

히미리심함이냐상셔왈부부는인륜디관이라취하와불미하오면취치아님만갓지못한
 고로지우금천연하니다상왈당금의경의지모당홀녀지드무니너모갈희여사속이늦게
 하리오하시랑이상의를지괴하고문득쥬왈신은고향에잇슬적의빈한한집과정혼하얏
 습더니규슈촌도에이삽기로밧쳐성례치못하얏나이다상이악연쇼왈남이엇지한말을
 의지하야공방에독쳐하리오짐이경의게숙녀를천거하리라시랑이디쥬왈신니슈불학
 무식이오나섭세쳐신의신의곳업스오면던디간죄인이라몸이빈천한셔정한바로이제
 부귀로람하와져바릴쑥시업나이다상이왈불연하다군신은부즈일체라비록했언약이
 잇스나집이만승의존으로한났부마를퇴하미도로혀조고만흔혈의를구이하리오짐의
 개한공쥬잇스니덩궁소싱이라저모덕형이초세하나그와갓든비우를갈희미제번간선
 에중시결치못하고경이또한고집하야결치못하니경은부절업시고집말고명을순하야
 밧그로군신야의를밧고안으로부즈의정을미즈옥루금던의교식이되고초방의부귀를
 누리라시랑이화연디경하야사모와씨를글르고던에나려고두청죄왈신은하방천사로
 문미흔천하고죽과무명하니비록던은을님스와일시영현하나또도학이불민한지라감
 히금지옥념으로짜하며봉황을이웃하야금장수막에아릿다온손이되리잇고신니환하
 에아비를실산하고어미를슬픈를보니다가수양형빙하야밧쳐혼인을정치못하고어
 미님중에유언니정영하야귀가어머무르스니혈혈하야그집에서스라나금일이에나르
 미그은혜라신은몸이귀하미나르고저하오나어버이쌍망하야도라갈곳지업는지라이

제상교를봉행하와초방의손이되온죽져와는아조절할지라신니그육이듯스오나고저
 절부에의를본밧는다하오니그여즈하쥬에잇고심규에리부되야슬푸른이르지말고록
 천니희소하야도라갈디업는지라신니은혜를갑지못하면성디에밧치감홀지라차고로
 불승봉행이로소이다상이발련변석왈경이불과년소서성으로던의를축범하니신즈의
 되아나라빨이정위에나려문죄하하하시나리즈쥬왈죽육이런위를범하얏스오나쥬스
 를듯스온죽져의소회간절하오니폐하만승지존으로한부마를정하시미신하의인륜을
 어지러이저의원치아는바를박핍함이국체에유히하고원간죽육이유인군자나너모청
 덩하고남즈지공이미몰하나그수한의히로을듯하고세빅은당당한영웅호걸노풍유
 발월함이죽육의게지나와왕공부귀로던하그남이라죽육만못할이업고구이함이업셔
 그위인이부마에합당하니맛당이저의원을죽츠신의를완전케하시고세빅을부마로락
 하심이명정언순한가하나이다상이란지총선하시고이의죽육을스하시고흠던관으로
 길일을퇴하며공쥬궁을지으라하시니하시랑은사은하고상셔는황공불감하야지슴고
 스하나상이불윤하시고과조하시니양인니도라을시상셔시랑의등을쳐왈니몹슬늘아
 네귀을퇴가당하니통한하도다시랑이소왈형은패하사례하염작하되도로혀가작지업
 을하나노형이이십로도령으로초방가인나되여금루옥결에일성이환락합이패하거늘
 엇지늘를쑥짓나노타일봉니손이되여영락이무흠홀제니게빅비스례하리라니점을허
 망라하더니금일엇더하노상셔불일왈니님의스업을일위시되곳하야공쥬아니면간디

로빈천하리 오국혼은원이 아니로되 꺾박함이 되어 장부의 일성을 괴롭게 하리오 그 뒤 점
 스를 드른 후로 아심이 불열터니 금일 보던 너는 원련강의 누라 그러나 하주숙녀는 어찌
 곳에 있나뇨 너는 모르지 아니리 너는 늘 들의 뒤치말고 이르러 사랑이 잠소부답이러라
 상셔도라와 상표고스한디상이 종불륜하시고 님의 덕일하미 구월이 겨우 앓는 지라 진부
 꺾히궁을 지으니 수달은 창과 주궁 꺾이운 소에 표묘하고 황동도란이 일석에 바이니
 그 장녀하미 비홀세업더라 화설강주즈스 소주즈스 로더부러 모반하야 산림강도를 모화
 렬음을 치며 성을 함몰하고 병위되진하니 인민이 황황하고 변희는 들이 들하니 만묘소요
 하고 상이 놀나스 빅요를 모와의 논하실시 일인도 응홀지업더니 반부종일 위소년니즈포
 를 쓰이고 출반주왈 신슈부지하오나 일군을 빌이시면 밋천도적을 소탕하와 성은을 만애
 일이나 갑고즈하나이다 모다 보니 흥문판태학스 하적옥이라 상이 장신장의 왈경이 비록
 년쇼지 지점전하나 엇지 흥적의 곳에 보되리오 사랑이 돈수 주왈 신수 유충이 오나뇨 고마
 홀도적을 두리릿고신이 만일 그르미잇스오면 머리를 버혀 국법을 정이하소서 빅요적옥
 의 무예신통함을 일시에 주하니 상이 좃츠스군스를 조발하실시리 부상서 진세빅이 출
 반주왈 강주와 쇼주와 도로 요원하와 수미를 상응키어려오니 신니 원견디일지군을어더
 병력하야 파하리이다 상왈 경은 공주의 길과 불원하니 엇지 멀이 가리오 상셔 주왈 불가하
 니 다국가 위란에 엇지스 정을 도라보리 잇가 파적후성례함이 늦지아니하이다 상이 불예
 하거나 그 총의를 막지 못하스 세빅으로 평동디 원수를 하시오 고하적옥으로 평셔디 원수

을하이스분병출스하라하시니 냥인이 비스이되하야 각각군스를 점고할시하원수는 오
 만군을 거나 려고진원수는 십만군을 거나 려출스할시하원수의 군스적으물 무르니하원
 수왈 각각쇼장이니 군스다쇼에잇지아니하나니 형이 소주를 속히파치 못하리니하처하
 고군스를 경이 쓰지말나 모일모일야에 동북풍이 불거시니 적을 격동하야 여쳐쳐디전
 하면한북에 가히파하리니삼가 명심하라니 파적후서 산하에 머물너기 다틸거시니한가
 지로반스함이 조홀나타상셔소왈삼가형의가룻침을 불망하련니와그디동북풍을 비러
 나의군정을 돕고져함이 아니뇨그러나 만리밖승피를 예탁하니 가히신인이로다하원수
 쇼왈 잠간던문을 살피니그늘바람이 불거시오나의게교되로형하면조연적을 파홀거시
 니니괴는 디로반스하면혜아리건던한가지로도도리라진원슈응락고왈우리양인나이
 제홍디에나아가니셔로사성을 모를지라만일스인종불길하면엇지슬푸지아니라하원
 슈쇼왈 엇지여차불길한말를하나뇨피차무스하리니물여하라하더라의일의원슈성을
 떠날시상이 옥테불안하스궁외에전송치 못하시니양원수금꺾에비현한디상이수이성
 공반스함을 니르시고삼비어주를스급하시고상방닌금과빅모황월을주시고선찰후계
 하라하시니양원수스은수명하고장졸들거나려출스하니빅요모다동문에나와보닐시
 디즈상명을 밧즈와문무들거나려동교에니르시니어막이 일광을 가리왔더라 디즈잔을
 드러양원를주시니양원수돈수빅빅하고바다마신후니어빅관니또잔을들이더니군스
 시각을보하느니라양원수각각군을 휘동홀시정기폐일하고검극이 추상갓더라양원수

황금쇠조갑의조금투고를쓰고등던셔디를두르고말만한금인을요하에빛기차고천리
 디완마를타스니일인은룡호지상과일월지표를가져쥬아부의풍이있고일인은논봉지
 상과추던디상을결함앗스니은々이와룡의후신이라모다보고차단하더라호々당々이
 흥하야면던산하에니르러수일을머물러각々분명홀시하원수닐오디니명공을위하야
 한묘칙을드리나니쇼쥬는동희벽쳐라여러천리의수륙이다험하니공이룡로호킹코즈
 홀진디군식신고호고인마피곤홀지라이제비도하야오강을건너수々히행면십여일
 닢의이를지라첫진은마오성이니적이밋쳐준비치못하얏슬거시니차야의강을건너업
 습하면가히이길지라면져그예기를씩고군스를쉬어나의니르는늘양진을합하면디공
 을세우리라진원수쇼왈뉘그디를자해있다이라니성각건디수퇴쉬오나천리힘디의
 쉰풍을만나면쥬건니와창과풍제의진되어려을가하노라하원슈쇼왈니엇지위티하면
 권홀리오반점의심을두지말나하고한장부작을뉘어쥬니불은글조로사십구조진언을
 썼더라이를가져손밭내니지말고선종의셔밤이면북극을우러러일획번외오고나지
 면오시의니려오되형여비밀이하라자연순류하리라진원슈본디소활정직하야방술을
 불관이너기되사랑의말은신중하는고조밭고쇼왈니본디잡술을룩々히아더니그디의
 신기한바를발히밭아삼가형하련니와만일위티하면네당하리라하원수답왈만일그르
 미잇스면너머리를사레하리라진원수집수왈아모리그릇하야도너를히치못하리라하
 원수미소작별하고강쥬로나아가고진원수는오강을향할시디외정제하고군령이엄숙

이라소과의추호를불범하니여민니단쇼호장으로왕스를맛더라하원수강쥬에이르니
 강성소속진양이다항복하되적군이승々장구하야연성을발바위망이도석에잇스니연
 경은장안을접함앗는지라산동렬음이다홍홍홀시하원수크게근심하더라원수출정
 이후로밤에잠을자지아니코병셔를보미정신니비승하교쥬수갓하니제장이다신기이
 너기더라의일의명산하에이르러바라보고디쇼왈적이계제로산후에복병하야아군을
 속이고즈하거니와계교를라형하리라하고이에도리와차야의군스를함미하고가만니
 적진에니르러불에엄습하니적이산곡에숨어던병을기다려치고즈하다가불의지변을
 당하야크게피하야다라나는죄불가승수오기여는다항복하거날원수항즈를각별무홀
 하니중적이고무열복하더라형하야연경에이르러하치하교격셔를적의계전하니라화
 설강쥬즈쇼효용이병강함을밋고쇼쥬즈쇼경완으로더부러정병이만을썬모반하니이
 는다효용한장사라병세디진하야연하야두성을엇고연경을썬히미도석에잇더니던병
 이이름을듯고즈래엄살코즈하다가도로혀디피하교격셔이르렀는지라효용이분연왈
 닢당당이명일자응을결하리라하고잇듯는평명에양진니교전홀시던진문과열이논곳
 에룡봉일월과와황금부월이좌우에들넋고홍라산이붓치는곳에무수한갑스와철과
 중장이한술위를미러나오니이논하원수라머리에륜건을쓰고몸에학창의를넋고허리
 에스만디를두루고손에우선을드러스니벽설과부와월치상광이벽일이요요하니바라
 보리우경선군이러효용이디쇼왈송이스람업습을가히알이로다구성유취로물도마르

지아니한아헛거슬전진에보늬엿스니엇지우리옹호지장을당하리오하원수소왈늬비
 록약하나너의무리를초기갓치너기나니빨이항복하면오히려묵숨을옹디하리라효용
 왈너빅면셔성이무삼수단으로나를티적홀다원수소왈잡부리를늘리지말고늬한진을
 철거시니가히파하라효용이응락하니원수이예그를들너한진을치고닐오디이진을아
 나냐효용왈엇지모로리오런문진이로라원수왈내임의알거던파홀소냐효용왈무어시
 어려오리요하고제장을거나려짓쳐드러오거늘원수전령하야진압홀헛치라하고거짓
 뒤흐로물너나아가니효용이원수의잔약함만싱각하고호호탕탕이거러짓쳐음을보고
 가만이좌우선봉을불너세녀호호훗하다가적이더욱갓가이오거던복소리를응하야에
 우디헛오와차셔를일치말나하고이에스면으로훗터다라나느니라효용이점점승제하
 야바로티진을식살하며원수의지략과진법을모로고한갓강포만밧고물미드드러오더
 니원수말머리를두르며복을올리고그를두루혀훗터진복병을불너급히에위치니효용
 이엇지헛진지계를알이오원수칼들드러효용을썩지저왈이강적은빨이항하라효용이
 디로하야이를갈며다라들거늘원수마즈쓰와수합이못하야금광을쫓차효용의머리마
 하에떠러지니그남은장졸은다손뭉거항하거늘티수잔드러칭스왈잔홀한안싱이어육
 이됨을면치못하얏더니원수의덕으로강적을멸하고싱명의도단을구하시니사직의복
 이오원수의덕이로소이다원수손스왈이난런즈의홍복이시니니무삼공이잇스리오티
 슈그청춘쇼년의선풍도골이좌중에조요함을그옥이항복하더라풍악을나오고티연을

비설하야티접고즈하니원슈아직적을파치못하야시물로구지스양하야밧지아니하
 구양을잡고술들니야삼군을위로하고곡식빚을니야그민을진제하니빅성이고무열복
 하더라명일디군이강주로나아갈시티슈십리장정에전송하더라츠시디병이호호탕탕
 이나아가니렬음이분분지영하고인민이항화등축을드러왕스를맛더라수일만에강주
 성에둔병하고효용의수급을보니야항복하라하니효관니갑히쓰홀의스를못하고견수
 불출하니원수또한안병하고방북쳐빅성을안무하고장수를명하야성에올나크게외여
 왈만성인민은드르라너희도디민은다우리성상적저라역적이무상하야성상을반하니
 너의죄아나나이제수월만성을외우면너희다쥬려죽으리니니참아싱영을살히치못함
 이라만일문을여러디군을마즈면전화위복하리라인민등이이소리를듯고오리효용의
 강포를원망하든지라일시에물결허여지듯하야남너로쇼업시무리지어수문을참하
 고문을여러원수를마즈니원수이의성에드러안민부동홀방을붓치고효관의쳐저와종
 족을잡아다정법홀시철보홍장훈분면니셔로통곡하니견지다낫출가리오고원슈단왈
 니엇지역적을다스릴줄아랏스리오하고추연불락하더라이의창고를여러빅성을진홀
 하니송성이진던하더라원수삼군을호상하고제장중혹기쥬담적하느즈를각별중치하
 니인심이속연하더라일일은월빅풍청함을라우연니건상을보고소왈진원슈오히려파
 적지못하얏스니가장근심이로다하고이의성상에올나전도단발하고던디게비려동북
 풍을엇고도라와축하에안즈고요이둔패를엇고심중에디희하더라이의첩보를도정에

보하고 슈일을 머무러 인민을 삼강오상과례의를 권장하고 환과 고독을 무홀하고 학교를
 힘쓰니 일읍이 교화되 흥흥 더라 원슈회군할시 백성드리 말머리를 막아 떠남을 앓기니 원
 슈위로 왕덕군이 었지 오리 머무리 오니 도정에 아 되고 어진도 슈를 보니 여평안케 하리라
 하고 즉 시군을 거두어 승전고를 울이고 경성으로 향할시 장졸의 질기 난쇼리 혼동하더라
 흥흥야 명산하에 이르러 안병결진하고 진원슈를 기다리더라 초설진원수 하원슈를 니별
 하고 쇼슈로나 아갈시 선척을 준비하야 오강으로 나리며 부작을 시험할시 불과 심일에 디
 히를 무스 이 건너가 되일점 통과를 만나지 아니코 호호탕탕이 흥흥니 정과 폐일하고 살피
 연던하더라 하원슈의 계교로 마오를 치니 마오리 수녀 각이 저스경완의 막하로 심복이 되
 앓더니 불의 지변을 만나 감히 쓰호지 못하고 진원수의 디군니 살납하니 합성이던디진
 동하난지라 원리진원슈호령이 밍렬하야 회음후의 지모와 슈아부의 풍이 잇는지라 한번
 령이나 리미장졸이 진력하야 사디라도 사양치안는지라 급히성을 쳐싸히니 녀각이스스
 로 죽거늘 원수군을 모라성에 드리 백성을 무홀하고 방북처 신민을 부르코스졸의 노략을
 금하니 사민니 열복하야 닥도와 모도니 원수장수 일인을 머물너성을 직히 오고 쇼슈로나
 아갈시 쇼과의 추호를 불범하니 계견니 놀나지 아니하고 백성이 단스호장으로 왕스를 맞
 더라 화설쇼슈즈스경완이 효용으로 동심모반할시 동오인심을 거두어 장스를 삼고 갑병
 을 수습하고 강주마산력을 모다 취당하더라

第十一回

陳元帥捷戰封蘇州伯
 河侍郎自願赴西蜀亂

진원수가 싸움을 이기니 쇼소빔을 붙이고
 하시랑이 서촉난에 가기를 노원하더라

화설쇼슈즈스경완니 갑병을 모호고 산적을 작당하야 궁성마오양쳐로결연하야 강주의
 상응을 칠시 정병십만과 양초를 수운하야 효용을 구완코즈하더니 의외에던병이니 르러
 쓰호고즈하미 감히나 쓰호지 못하고 견수 불출하더니 원수겨셔를 보닛스되역던무도하
 야던서를 모르고 죄를 더하지 말고 일직이 항복하면 죄를 스흔다하되 스즈를 구축하니 원
 수디로 하야 군을 모라성에 이르니 성첩이 험준하야 가비야이과치 못할지라이에성삼
 심리에 하치하고 군스를 쉬오며 양초를 수운하야 백성을 무홀하고 선비를 디접하니 도인
 이서로잇그러도라와경완의 회형을 이르난지라 원수 쳐두르며 눈으로 보와 유수 갖치
 쳐결하니 방스원의 백일공스를 엿지 죽히 이를 비리 오위덕이 동오에 덤헛더라 원수의
 격문을 지어 동오를 읊을 교유하니 제군니 만히 붓쫓더라 초일디연을 비설하야 삼군을 후
 상하며 왕스를 도으니 은위병행하더라 잇셔는 추팔월 상순이라 쇼슈성을 천지 슈일의 안
 하양최진하야 곡성이 낭즈하니 원수하원수의 말을 생각고 슈야스졸노성에 올라수욕하
 니경완의 성이 급한지라 열읍주현과 인심이다도라가고또한연일수욕함을분로하야크
 게성문을 열고나디진할시 군스 효용하고경완이또한만부부당용이잇난지라던장이모
 다두려하거날 원슈디로결왕무도적지디도로던은이응성하야 쇼슈천여리디방을맛겨
 왕작과다름이업거날 무어서부축하야 모반하니기죄 불용취라쌀이미이물바드라경완
 이디결왕너의 님군이 티쇼과역적이라 시군시형한광의를도아아래조스손을 슈멸한무
 리우리의병을일우혀역적을 슈멸하야태소황야의원수를갑교자함이라언필에다라드

리원수를 취하니 좌우선동이 마즈 되적하되 감히 당치 못하난지라 원수되로 하야 창을 드
 러되적하더니 문득 운무 잠잠하고 광풍이 되작하야 비스쥬적하며 절목 발옥하야 적병을
 쓰러바리며 던디아득하니 적이 불의지변을 만나스 산분류라던 병이 승세하야 급히 짓치
 고원수철궁에 왜전을 먹여 경완을 바라고 쓰니 완이 비록 효용하나 동서를 아지 못하난
 중엇지 시위소리를 드르리오정이 가슴을 마즈 번신락마하니 텨장이 되다라 번힌비된지
 라이욱고 풍세긋치며 던디명랑흔지라 원수군을 모라성에 드러 방북쳐 백성을 안무하고
 창고를 여러 백성을 진흥하며 삼군을 신칙하야 추호를 불범하니 만민이 열복하더라 렬읍
 이모다 승전고를 울이고 태평연을 배퍼경하할시 진원수미녀 성식과 교스한 가무를 멀리
 하니 모다 총복하더라 첩보를 도정에 주달하고 즉시 반스할시 백성이 비리 술위를 잊그려
 적즈부모셔 남갓더라 다시 슈일을 행하야 명산하에 이르니 석정이 중추회간이라 하원수
 의 회군함을 기다려 산하에 결진하고 있더니 일일은 산상을 바라보미일디인마 풍우갓치
 모라오니 정괴 폐일하고 금국이 삼나한디 승전고를 울이며 바다 흘건너 호호탕탕이 오니
 이곳 하원수라 괴위당당하고 신체동랑하야 백일이 바이다라 하원수 제장으로 더더부러 강
 두의니 르러 마즈 읍왈갑 주몸에 잇기로 레를 못하나이다 진원수 답읍하고 반기를 썩여 함
 소악슈하고 장중에 도라와 좌를 정하미셔로 만리의 성공함을 치하하고 진원수 소왈즈 춘
 니 신세로다 하원수 쇼왈 천추도 유신하야 괴악을 괴오지아니며 날을 위즈하나 노늬이
 곳에서 기다려 지슈일이로다 하고 서로 잔을 잡아치하하더라 명일양원수 회군 반스하야

여러날만에 경스에니 르러 권하에 인견하은디 상이 크게 반기스 원당구치를 위로하서고
 그쇼년총의를 칭찬하스 사주하서고 제백으로 써버살을 도도와 본즉리부상서에 소주릭
 을 더으시고 하사랑으로 강주후를 봉하시니 양원수공이 미하고 작이 과함을 천만고스하
 나상이 불운하서고 제군장졸를 다 작상하시니 양인이 부득이사은되도하야 집에 도라오
 나 영광을 고할부되업슴은 일반일너라 츄설만세 황애공주의 길일을 다시 띄하시니 삼쥬
 니 격하얏는지라 범스성비하고 공스화려하니 전제백이 불열하더라 츄시하휘스스로 싱
 각하되늬적은공노로은스를 남을 길어업스니 불구에 디공을 일우면가성을 회복하리라
 하고 더욱 국스를 진심하더라 서에 전제백이 길레수일이 격하미심시울을 불락하야 마
 음에 헤오디공주는 금지에 위제뿐이오 부덕이 업슬거시니 나의고산갓튼마음을 괴로이
 격든바로 쇼망을 맞치기 쉽고 속절읍시행방슈장속에 장부를 잠가한갓부가옹이 되리니
 엇지 불행치아나리오하고 우수을 억하더니 흘연본병이 발하야 상석에 침병하니 텨경
 여하스어의를 보내여간병하서고 분후하난중식도로에이엇스니 텨은이 응송함을 황공
 하고 또제왕공즈와 명스지상드리닷도와 문병하니 진백이 괴로이 너기나 부늬이 접디하
 다라 진백이 병중에 하후의 자최드무니스모지심이 올결하야 문후하느스인을 디하야 회
 보하되늬이 제병들미후의 옥안을 디키어려오니 비로소외친니 쇼하든 줄알과라하니 하
 후듯고미소하더라 원리하후의 군문공스다 첩하야 잠시 떠나가기어려워진 백을 찾지 못
 하나일잇지 못하더니 그견집함을 드르나 쇼임의 출척을 잡아군정을 다스리미안저서

천리밖승피를알며충명이여신하야일을당하미공청하니누감히응폐하리오수월의군
문스접제하야각각본직을맡져힘되로해아려님용하니장졸의송성이흔던하고막하무
반등이티산복두갓치양망하며법들이삼엄하고위덕이병행하니비견되공저노를다스
리신저석달에노티치합이라도정이숙연하야그덕을외오논지라화유정직하곤량공
검하야스람의단처를들추지아닛코악인을표편아니되즈연쇼인니물너가고현인니북
종하니만도예티하고상이또한그현명함을아르시고특지로좌승상을비하스국가중님
을전주케하시니하후고두스왈엇지이음양쇼스시하리잇고신이약간군문의조박은아
오니군법의두스다스리개하소서하고스스하온티상이스에승상직첩을거두시고리부
티총제를검하스문무출척을임의로하게하시니위권니도야에진동하고상총이응성
하시니총지불승전를하야더욱소심의스하고용인지져여신하야초현납스하며각득기
소하니청축이긋쳐지고침스지래와외식지풍이스라저만도숙연하니국정이티행하더
라일노인하야진벽을즈로찾지못하교혹츠즈도각이잇서변요하면즈괴집권되신으로
괴로이녀겨직시도라오니진벽이심이창앙하더니일일은가를진부르드르하니맛참손
니업거날바로병소에너르니진벽이침병반월에소세를폐하고단의갈건으로취금을두
르고안셔에지헛스니광풍제월갓튼지라총지갓하아가안지미금관면류취회하야황
금보디에옥보금인을빚겨피육이정징하니향취괴이하야홍일이떠러지난듯한지라진
벽이크게반겨집수문왈그티만일병드릿슬진딘티엇지일시를떠나리오형은나의병들

물보고두어번씩척으로보고도라가나잇지상히밋든정이리오하후잠소왈지스에다
스기로듬을엇지못흐연괴라두어순직법함을만나나왔다가니총권함을당하야티인접
디하기괴로와형을보지아니코즉시도라갓나니엇지조금이나무정하리오년이나쇼년
장괴로소소침금에이릿트시수척하미밋쳤나쇼인하야목을잡혀보고갈오티형이던하
제도로한번전장에근노하미병이나도다년이나골수에흔스를너모죄여병이난가하노
라진벽이닝소왈넌공주가례로불락하야올올한회포병심을더으니엇지밭부미잇스리
오너본병이잇서마음곳쓰면더하나니금일은가장나흔지라다만못나니형은신인이라
반다시공주의현부를알이니잠간일이라하후소왈넌엇지구중궁궐에금지옥엽의션
악을알이오연니나필경길하리나과도이념너말나비록불현하나형이장초말고즈흐
죽엇지밋치리오현우간아라무익하도다연이나우리양인니불구에강적을만날거시니
형은모로미병을조리하야한가지로티공을일올지라형의흔스마장이심하야일장풍파
이러나리니공주가례또한더티레로다진벽이경왈시화승평하니또무삼강적이나리오
그티난신안이라반다시그릇알미업스리니만일난시를당할진티우리한가지사성을결
하리라공주길례에마스잇스문부운갓도다져즈음게그티점복하미하주에잇다하든너
즈는어인뜻진고하후미쇼왈우연한점스를취신할비아니라하주옥녀난넌또한아지못
하니전두를볼스름이나라진벽이의려하나맛참넌저닷지못하더라진벽이하후의손을
잡고왈나는그티를위하야스성을허하교회복을일체로밍세하나니즈춘의날향함은엇

더흐노후추연답왈형이나를향하는마음이너모과도하니도호불안호도다그러나
 형이누디독신으로미가미실호야일점골룩이업스니도동봉스들의탁할곳지업거날설
 스니스디에든들형이엇지목숨을허호리오만일쓰라죽으면이는호를바리고신을중이
 너기미라이는다만형이위티한디나아가면니한가지목숨을허할거시오형이평안호면
 나도또한지취를초려진되호리니이바티할말이업노라진벽이스왈그디말이곡진호나
 그디독신으로미호미가합이쇼제와갓거날엇지스성을허호나뇨나는반다시진되거취
 를그디와갓치호야평성을떠나지말고호노라하후소왈니비록중심밍제그러호나
 는본디제연니적은스람이라이제삼스년후동적이부은과갓호리니형이엇지한가지
 로써로리오속절업시심두에거릿제말나진벽이아연티경호야묵묵무언니러나날호
 여단왈이뜻지제벽을거절호고은거산림코호나니엇지쫓츠가지못호리오하후미쇼
 부답이러니홀련벽저쌍곡이분호호하며하리고호되도상셔니림호나이다진벽이강잉호
 야마질셔하후제공으로더부러레필죄정후말삼할셔옥성이도호호야말마다신괴롭고
 정디호며놀흔도학은공밍의여풍이오말근언어난스람의싱각밧기라은량공검호고엄
 숙단엄호야동일지의와하일지이를검호야단순을반기호고옥성을화답할져삼춘혜풍
 이일만화신을동호난듯묵연단좌호미츄련엄호한디청풍이고고호야만리부운을쓰리
 치고벽일이요요한듯놀흔괴상을제인니불승경단호더라날이기울미도상셔먼저가고
 하사미이어형할셔옥난적거와금괴양산니좌우에버렸고벽제추종이티로에답혔는디

금거옥류우회취금거장을헛치고금관옥디로단좌호앗스니룡봉조절과일월풍광이찬
 는한지라도성인민니분호이칭선월우리하상공은볼적마다새롭다호더라수일후진벽
 이병이쾌쇼호니라일호은종지조용함을다적식후진등으로외당을직히고후원송정에
 가옛날선술을시험호더니초일진벽이비로쇼쇼제호고동교에단여오는길에하부에드
 러가니떡맛참석양이라외당과정당이다일공이어날가인다려무르니송정에홀노계시
 다호거날상셔암회호야이에종즈를물이고스스로거려송정에니르러는문득공중에우
 레성이은은호고한풍이이러나며운무집을들너거늘크게의심호야송벽스이에숨어보
 니하후은관무의로우논에단좌호야납으로미미히글를외오며무삼부작을살오더니이
 옥고천병만마의헌화지성이요요호며철갑신장과무수귀졸이전하에설입호고우러
 청령호거늘후왈불구에강적을만나리니너의삼가디후호라신장등이일시에응명호고
 물너가미문득은무참참호고일진음풍이이는곳의간디업는지라후다시진언을외오며
 그리룡을공중에더지니은무스식호며급한비나리고송정을보지못호며다만시니변호
 야청청소이되야수세홍홍한중에물속으로쫓츠팔괴금룡이나와구름을명에호야공중
 에소스어우러져쓰호니뢰성벽력소리진동호는가온디셔괴암암호고변화불칙호야가
 히황홀한지라진벽이어린드시서서보더니이옥고일진청풍이이는곳에은무슬허치고
 룡이문득간디업고런디명량호며일식이조요호거날하총지정상에을련독좌호앗다가
 초룡을거두어불에살오고안서이이러나오니진벽이비로소정신을진정호야이러나와

하후의 손을 잡고 닐오디즈춘아앗가그어인형상일년고하후미소부답고한가지로정
 상에을나좌정하미진벽활형이성현셔를넘어스스로허망환술을헿하니이논공명의
 도덕을상고군조의되아니라니그옥이불취호노라하후불승수괴호고정식되왈너본
 디몸이공명에깃드리고뜻지군조를스모호나또한비은제조심상치아닌고로즈연회롱
 함이오불구에강적을만늘지라시고로법을시험하미러니의외에형이규시할술뜻호앗
 스리오늘노써정도아니라호나즈고로녀상공명이신술조화무궁호되또한성인이라엇
 지그홀노저옥썸이리오니한번하산함으로부터저조를시험치못호야심히울적호나
 목이번거호고실노군의즈최즈준고로능히성의치못호앗더니오날한가함을타잠간회
 롱한거술곳하여누설호나일시나의은중치못함이라누를타호리오우연이눈을들미
 남녀회계의회기은니덤헿거늘비로소형의은술알고곳쳤스나실노낫들곳지업도다년
 니나형이나의잡술를비척호며스즈로례술를헿호야옥옥한사온디봉우에곳을여어보
 니이또한정도라호라진벽이소왈원리나의찾는거술염호는도다사람이말과일이을은
 죽비룩던하에다잠척호야도부그럽지아닐거시오그일이맛당치아난즉부그러을지라
 그디사람을쓰려스스돕기를구호니가히군조의일이아나로다니괴운을보왔노라호니
 엇더호디노신병귀졸은병가의을커니와롱신은무삼뜻고님의니게누설호앗스니즈시
 가릇쳐날노호야금비호게호면누설치아나려니와불런즉봉인즉설호리라하후단왈너
 님의진중치못호야여차누설호앗스나형주는날과문경지교니혈마엇지호리오봉인즉

설을호면그디만허망지인니될다름이라군니환술을요망타호고엇지도로허비오고즈
 호나노니가릇침은어렵지아니컨니와두리건던졸연니비호기어려올가호노라다만그
 디괴운은현상자기외일방왕과라속이회고것치북으면던자의괴운이니군즈는말고안정호며소인은호
 상의괴운이오안니누르고것치북으면던자의괴운이니군즈는말고안정호며소인은호
 리고스특호야잡괴운니그몸에싸로느니라말면놀흔디올나망괴호야천리밭글살피나
 니목전에괴운을모로리오만는잠작호야살피지못한연피라롱신의변화는병법과다른
 지라우연니물을보고화룡을회롱함이오비류환술이나수단나죽히두릴비업스나그러
 나일분비례를헿치아니코또한인천에알이지아니면비괴를누설치아나려함이라그옥
 한가온디라도반점그른마음을두지아나니실노일월성신나도림호나또한붓그럽지
 아니로도진벽이소왈내비호지못한거술내홀노비왔스니엇지비척호리오그디술법은
 죽히사히도옴기고던디도저작할지라무삼적국이잇스리오그디망괴를잘한즉심규어
 즈의괴운도알이로다회소왈형이공유를알고즈호거니와밧그로낫나난괴운은디길
 디홍파디션디악을관관호려니와갑히감초인너즈를엇지가비야이의논할비리오잔벽
 이그손을잡고단왈그디엇지금결속인들선악을모로리오마난반다시불편한고로날를
 디호야바로이르지아나려탁스함이니너엇지모로라초회라그디가튼신인니당세에오
 리누리기어려오니그디물너가고즈함이신인지화를누리미라즈고로현상양지보전키
 어려오나만일한소렐과유문왕의와롱과티공곳아니면큰공과놀흔저죄세상에머물기